



런던의 나의 저택, Hotel 41

“영국스럽다’고 말해야 할 때

‘참 영국스럽다...’. 호텔 41에 들어서면 이런 생각이 든다. 고풍스러운 멋을 고스란히 살린 채, 절대 튀지 않으면서도 사치스럽지 않은 품격이 느껴지는 곳이다. 런던 한가운데, 그것도 여왕의 저택인 버킹엄 궁전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이 호텔은 작지만 절대 부족하지 않은 최고급 부티크 호텔이다. 모든 면에서 ‘최고’ 만을 선사하는 에디터 이승민 글 최영은(런던 통신원) 사진 제공 Red Carnation Collection

이 호텔은 5층 건물의 가장 높은 한 층을 차지하고 있는 특이한 호텔이다. 자매 호텔인 4성급 ‘The Reubens’ 건물 제일 위에 단 한 층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입구 표시도 없고, 호텔이라는 느낌도 전혀 들지 않는다. 아마도 여행이나 출장으로 런던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상업적인 호텔보다는 런던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의 집처럼 느끼게 하려는 호텔의 배려일지도 모른다. 손님에게 주는 호텔 키가 아니면 벨을 눌러야만 입장이 가능한 이곳에 들어서면 작은 책상에 앉아 있는 직원이 성심껏 인사를 하며 손님을 맞이한다. 약간 어둡한 복도는 블랙 앤 화이트 체크 무늬 바닥이 길을 안내하고, 벽은 짙고 붉은 마호가니 장식으로 돼 있는데 다군 데군데 촛불까지 장식되어 있어 분위기가 더욱 고풍스럽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나밖에 없는 5층을 누른 뒤 올라간다. 엘리베이터 안에도 역시 흑백 거울로 만들어진



체크무늬가 인상적이다. 문이 열리면 폭이 좁은 복도가 양쪽으로 뻗어 있는데, 이곳 역시 깔끔한 데코로 장식되어 있다. 패딩이 들어간 단아한 줄무늬의 패브릭 벽지 위에 띄엄띄엄 걸려 있는 오리지널 그림들이 눈에 들어온다. 호텔 전체에 걸려 있는 그림들은 모두 오리지널 작품들로 컬렉션의 일부인 게 대부분이며, 마티스 같은 대가들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 2000년 4월에 18개의 방으로 오픈했던 이곳은 현재 객실 수가 30개로 늘어나긴 했지만, 규모로는 런던에서 가장 작은 5성급 호텔이다. 적성은 특별히 서비스가 뛰어난 호텔에게 주어지는 명예다.

이곳은 서비스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나 손님의 최고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호텔 그룹 'Red Carnation Collection'의 일원으로, 이곳 역시 서비스 퀄리티로는 절대 뒤지지 않는다. 직원과 손님의 비율이 2:1이라고 하니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는 셈. 예약과 동시에 미리 손님의 취향을 파악해 손님이 호텔에 도착함과 동시에 꿈꾸었던 환상의 세계와 조우할 수 있게 한다.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과 함께 베개 사이에 앉아 있는 귀여운 곰돌이 인형, 시원한 샴페인, 베개에서 묻어나오는 향긋한 라벤더 향기, 책상 가득 알록달록 담겨 있는 과일, 그날의 TV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가이드 북과 겨울이면 미리 지원 벽난로가 손님을 반갑게 맞이한다. 때문에 호텔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지인의 집, 정이 듬뿍 담긴 방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곳의 인테리어는 한마디로 깔끔하다. 30개의 방들은 하나같이 블랙 앤 화이트라는 모티브 아래 각기 다른 데코로 꾸며져 있다. 뭔가 현대적이면서 또 떨어지는 세련미가 느껴짐과 동시에 베이스로 깔린 클래식한 분위기가 풍겨나와 눈과 마음을 매료시킨다. 비즈니스 미팅이 가능한 스위트룸에는 컴퓨터와 팩스, 프린터 등이 준비돼 있고, 모든 방에는 최고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보스 시스템에 아이팟, 초고속 Wi-Fi 시스템, 여러 벽과 화장실까지 걸려 있는 PDP TV까지 완벽한 첨단 시설을 자랑한다. 특히 이곳의 마스터 스위트는 호텔에서 가장 큰 객실로 멋진 스카이라이트가 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런던 하늘을 바라 보며 잠들 수 있다.

호텔 41의 자랑은 Executive Lounge인데 모든 식사와 오후 티타임, 칵테일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고급스럽게 꾸며진 어느 저택의 라이브러리 같은 느낌을 주는 이곳은 1·2층과 중간 2층(Split Level)으로 나뉘어 있으며, 가운데에는 클래식한 큰 지루본이 위치하고 있다. 마호가니 벽장과 클래식한 가구들, 천장까지 꽂힌 책들, 그리고 동그렇게 하늘이 보이는 높은 천장에 달려 있는 화려한 두 개의 샹들리에까지 실로 영국의 절제된 미가 한껏 풍겨나는 곳이다. 라운지에는 식사 시간 외에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바와 24시간 무료로 제공되는 음료수, 과일, 스낵, 등이 준비되어 있다. 냉장고에는 맥주와 탄산음료 등이 준비되어 있지만 어느 때는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생선, 고기, 햄, 과일 등 출출할 때 꺼내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들이 24시간 준비돼 있다. 이 모든 것은 호텔 손님과 그들의 초청객에게만 오픈되어 있어 아늑하면서 프라이빗한 편안함을 선사해준다.

이 밖에 원하는 이불, 종류별 고급 베개, 마사지 용품이나 아로마테라피를 선택할 수 있는 웰빙 메뉴, 24시간 룸서비스, 휴대폰 제공 서비스, 벤틀리 또는 레인지로버 자동차 서비스, 버틀러/개인 비서 서비스, 최고급 스파 용품과 24시간 마사지 서비스 등 손님을 위해 기준을 뛰어넘는 섬세한 배려가 묻어나는 서비스들이 준비되어 있다. 늘 환한 미소를 머금은 직원이 앉아 있는 라운지의 메인 데스크에는 빨간 카네이션이 가득 꽂혀 있다. 이 붉은 꽃 장식이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호텔의 이미지를 연출해줄 뿐만 아니라, 직원 한 명 한 명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정성을 마음에 담게 해준다. 손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작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이곳의 신조는 최고급 영국풍 인테리어의 멋스러움과 어우러져 호텔 41만이 주는 최고의 스타일리시한 만족스러움으로 다가온다. ☺

Tel +44-(0)20-7300-0041 / Website www.41hotel.com

Address Hotel 41, 41 Buckingham Palace road, London, SW1W 0PS